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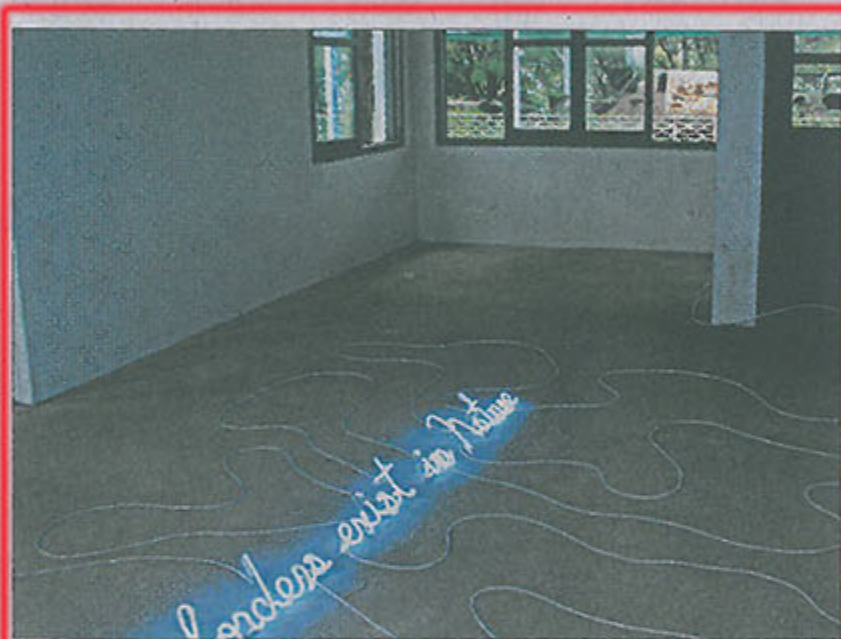
온몸으로 분단을 체험한다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

올해 3회째... 7개국 작가 참여
철원 접경마을 등 곳곳에 전시
버스 타고 작품·안보 동시 관람

남북 분단은 우리 모두의 일상에 다양한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군사적 갈등 같은 '사건'이 없는 평소에는 분단체제를 절감하는 이가 많지 않다. 분단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이산의 아픔을 공감하는 강도마저 약해지고, 긴장과 갈등·상처의 땅이 안보관광지가 되며, 통일에 대한 열망도 식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강원 철원의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미술전 '리얼 디엠지(DMZ) 프로젝트 2014'는 미술작품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옥죄는 분단체제를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는 자리다. 막연하던 분단 현실이 무장군인들, 지뢰밭, 철조망 등의 풍경 속에 가시적으로 다가온다. 또 접경지역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은 작품으로 표현된다.

올해로 3회째인 '리얼 디엠지 프로젝트'에는 7개국 14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관람객은 서울 아트선재에서 전시를 관람



월정리역 역사 안에 설치된 최재은의 '자연에는 경계가 없다'란 네온 작품.



소이산의 벙커 내부에 설치된 구정아의 '친애하는 영희에게'.

한 뒤 투어 버스를 타고 철원 현장으로 가 작품을 둘러본다. 김선정 예술감독은 올해 특징으로 "기존 안보관광코스 중심의 관람 동선을 확장해 접경지역 내 마을과 각종 시설을 전시장으로 활용했다"며 "현지 주민들의 환경이나 삶에 분단상황이 어떻게 녹아들었는지 살폈고 소리나 읽기·녹음 등 사운드 작품이 많다"고 밝혔다.

아트선재에선 정서영 작가가 음악가류한길·홍철기·이옥경과 함께 DMZ 접경지대 곳곳을 돌아다니며 녹음한 소리 등을 편집한 사운드 설치작업, 마크 루이스가 벙커 안팎 풍경을 담은 영상작품을 선

보인다. 두 작품으로 분단의 현실을 상상하는 관람객들은 철원행 투어버스 안에서 독일 저술가 잉고 니어만이 남북문제를 다룬 저서로 조만간 출간 예정인 <해법 265: 훈련 국가>의 일부 내용을 듣는다.

철원 관람은 2년 전 민통선에서 해제된 양지마을부터 시작된다. 이 마을 레지던시에 머물며 마을을 전시장으로 삼은 아드리안 비야 로하스의 설치작업, 동물들의 집 짓기를 본뜬 김주현의 '굴집', 사운드 아티스트 플로리안 헤커가 주민대피소 내부에 설치한 사운드 작품을 감상한다. 특히 버려진 마을 창고에서 선보이는 존

스코그의 영상작품이 눈길을 잡는다. 냉전시기인 1970년대 소련의 핵 위협에 대비해 스웨덴의 조용한 농촌마을에 들어선 요새 이야기를 다룬 영상으로, 같은 시기 선전마을로 조성된 양지리와 여러 상황이 중첩되기 때문이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는 문구와 녹슨 열차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 월정리역 역사 내부엔 최재은의 'No Borders Exist in Nature(자연에는 경계가 없다)'란 글귀의 네온작업과 사운드 작품이 설치됐다. 인근 DMZ 평화문화관 광장에는 구정아가 지난해부터 철원 현무암으로 작업해온

설치 '의식확장'이, 내부에는 민통선 내 마을 어린이들과 전쟁·분단·통일 등을 주제로 인터뷰한 다큐 레의 인터뷰 영상 및 분단상황에 따른 물리적·심리적 경계를 다룬 백승우의 사진이 관람객을 맞는다.

노동당사맞은편의 야산 소이산도 핵심 전시장이다. 미군 레이다, 발칸포 기지 등이 있던 소이산에는 지금도 막사, 벙커 등이 남아 있다. 구정아는 한국전쟁을 겪고 디지털시대에 이르는 시간을 살다간 가상 인물 영희의 이미지 등으로 벙커 내부를 미니멀한 공간으로 재구성('친애하는 영희에게'), 상상력을 자극한다. 알버트 샬레스의 설치작품이 들어선 소이산 정상에서면 풍광이 압도적이다. 드넓은 철원 평야와 백마고지, 평강고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평화롭고 한적한 산천이 하나가 된 장관 속에서 남북이 대치 중이라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 아름다운 풍광은 그만큼 서러운 풍경이 된다.

협력큐레이터인 독일 건축가 니콜라우스 히르쉬는 "분단과 대치, 긴장의 현상이 관광코스가 되고 유독 평화를 강조하는 역설적이고 독특한 상황은 예술가의 감각을 자극한다"며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분단과 관련한 다양한 인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 투어버스는 온라인 예약(www.realdmz.org)으로 이달 27일까지 하루 1회 운영된다. (02)733-8948